

# 순창군, 병충해 방제 토착미생물 특허 출원

### 고추탄저병·검은무늬병 등 병원균 억제 뛰어난 농작물 병해 예방·품질 향상 도움...농가 보급 예정

순창군이 농작물 병해 방제 활성을 갖는 우수 토착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지역의 토양으로부터 10종의 항균 활성을 갖는 미생물을 발견하고 이 중 기능이 뛰어난 1종을 선별, 실험을 거쳐 최근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1종의 미생물은 버크홀데리아 속 균주(Burkholderia territorii SCAT001)로, 농작물의 병해를 일으키는 병원균에 대한 억제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해당 미생물은 연구를 통해 농작물 곱팡이 병원균인 고추 탄저병, 검은무늬병, 잣빛곰팡이병, 시들병 및 인삼균핵병에 대해 각각 30.5%, 27.5%, 24.8%, 17.2% 및 15.6%의 억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 미생물을 특허 균주(KACC 92280P)로 등록하고 현재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위한 심화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특허 출원에는 순창군 친환경농업 연구센터의 역할이 컸다.

앞서 군은 2017년 종자개발과 친환경 농업으로 농업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자 센터를 설립했다.

군 단위로는 드물게 연구센터를 설립해 박사급 인력 확보와 시설 보강 등 적극적인 투자로 종자 연구와 병해충에 강한 미생물 균주 등을 발굴하며 순창군 친환경 농업의 미래비전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기능성 미생물 5종을 발견했고, 8월에는 질소고정과 공생 속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대두 근류균에 대한 특허도 출원한 바 있다.

군은 이번에 발견한 미생물을 활용해 지역 고추 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고추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토착미생물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탄저병 예방 실험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효능이 검증되면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설대송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발견한 토착미생물을 농업에 활

용한다면 농작물 병해 예방 및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 200년 배롱나무 신안 분재공원 '안착'

### 나주 독지가 두 그루 기증...대형 트레일러·크레인 운반

수령 200년이 된 배롱나무(백일홍·사진) 두 그루가 신안군 압해도 분재공원에 새로 뿌리를 내렸다.

보기 힘든 200년 수령의 배롱나무 두 그루 기증자는 나주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로 알려졌다.

기증자는 압해도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열리는 '섬 겨울꽃(애기동백) 축제'를 관람 왔다가 최병철 분재기념관을 둘러본 후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철 분재기념관에는 현재 200여 점의 분재가 전시되고 있다.

수령 200년 배롱나무 두 그루의 시가는 4억원을 호가한다.

신안군이 기증받은 배롱나무 두 그루의 근원직경은 각각 100cm, 50cm로 대형목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나무의 관리 상태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증받은 나무를 운반하는 과정은 한편의 영화를 방불케했다.

신안군은 배롱나무 두 그루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헬기 운반과 대형 트레일러 운반을 동시에 검토했다.

검토 결과 헬기 운반은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드러나자 신속한 운반을 위해 트레일러 운반으로 결정했다. 국내 최고의 조정전문 시공기술자를 대동해 이식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이식에 큰 장애가 없음을 확인한 신안군은 지난 달 28일 작업을 시작해 다음 날인 29일 25t 트레일러와 100t 크레인을 이용해 압해도 분재공원까지 안전하게 이동·식재를 완료했다.

이송작업은 경찰의 협조로 경찰차의 교통안내를 받으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배롱나무의 꽃말이 부귀인 것처럼 기증자의 넉넉한 마음이 '사계절 꽃피는 1004'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공사 한창

### 올 3월 개관 목표...전시관·전수체험관 등 구축

국악의 도시 남원의 품격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안숙선 명창의 여정' 전시관(사진)이 올 3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남원시 예촌 2지구 내에 조성중인 '안숙선명창의 여정' 전시관은 5832㎡의 부지에 전시관과 전수체험관 등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관은 안 숙선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영혼을 흐드는 명창의 공연'으로 마무리 짓는다.

특히 전시관에는 안숙선 명창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 창극 '두 사랑'을 주제로

구성되며, 체험관은 춘향가 중의 장 '속대머리'의 애절한 사랑노래를 3면 대형스크린을 적용한 실감디지털아트콘텐츠와 안숙선 명창과 함께하는 공연 및 대담, 남원 지역 명창 및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상설국악공연이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 문화예술과장은 "전시관이 완공되면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보존하는 역할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해 국악의 고장 남원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정읍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넷째 자녀는 1천만원

정읍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 실시한다.

이번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

화했다.

지급방식은 첫째 자녀의 경우 3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일시금 지급, 셋째 자녀는 출생 시 100만원 지급 후 만기별 100원씩 2회 지급한다. 또 넷째 자녀부터는 출생 시 200만원을 지급하고 만기별로 200만원씩 4회 지급으로 변경됐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복분자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장려금 지원도

고창군이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의 생산기반 구축과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고창군은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복분자를 생산해 2년 이상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게 지원범위 내 면적에 대해 2022년까지 복분자 최저가격을 kg당 8000원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영농비용 절감을 제감하기 위해 '복분자 생산안정화

지원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또 복분자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소농을 육성하고 농가당 330㎡ ~ 1320㎡까지로 정했다.

다만 접수희망자는 복분자 식재 농지에 토양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안전하고 고품질 복분자 생산을 위해 2시간 이상 영농교육(농업기술센터)을 이수해야 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담양군, 식량산업 5개년 계획 최종 승인

###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등 농산물 경쟁력 향상 기대

담양군이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식량작물의 적정 자급률 제고와 식량생산 다각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 계획, 투자계획 등이다.

군은 2018년 11월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와 계열화, 다른 작물 전환 계획, 식량작물 농가 조직화와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어 지난해 11월 농식품부에 종합계획 선정요청서를 제출해 3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승인에 따라 군은 앞으로 5년 간 농식품부 연계 지원사업인 특농경쟁력 육성사업과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RPC 시설현대화, DSC 시설지원) 등의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정부보급종 공급 우선 배정, RPC 비 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추가자금 배정 등을 받게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농협RPC 통합을 위해 수차례 협의의 결과 지난 7월 RPC 통합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종합계획 승인으로 RPC 통합에 순환이 예상된다"며 "승인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토대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해 담양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